

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 말씀요지

1. 인사말

- 회의에 참석해주신 **금감원장님, 협회장님, 연구원장님**, 그리고 **여러 관계자 여러분께**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-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석달 동안, **금융개혁**을 주어진 **소명**으로 생각하고 **쉽없이 달려왔음**
 -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**금융개혁의 성과**로
 - ① 개혁과 변화의 공감대가 확산, ② 현장 가서 몸 낮춘 감독당국, ③ 금융회사 혁신노력 시작 등으로 평가
 - 다만, ①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**아직 초기단계**이며, ② 개혁의 **지속 가능성**에 대해 **의구심**이 있는 것도 사실, ③ 당국의 **태도 변화가 핵심**
- 따라서, 진정한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**금융개혁의 절반**이자, 핵심 과제인 **금융규제개혁**을 본격적으로 추진
 - 금년초 금융기관 CEO입장에서 **“규제개혁을 절대절대 포기 말라는 절절포”**를 당부 드린 적이 있음
 - 취임 이후 줄곧 **“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”**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고민 → **“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”** 마련
 - 이 추진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**여러분들의 중지를 반영**하여 추진하고자 함
 - **금융현장·수요자 중심**으로 규제개혁 작업을 **더욱 속도감 있게** 추진해 나가겠음

2.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

- 그동안 **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**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제도개선이 많이 있었으나, 아직 규제가 **금융의 자율과 경쟁을 제약**하고 **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편하다**는 것이 냉정한 평가임
 - 특히, 규제개선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, **“현장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”**, **“그림자 규제”** 등으로 현장이 힘들어하고 개선해야 할 규제가 많다는 소리가 **저에게까지 직접** 들리고 있음
 -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**규제체계 개선도 중요**하고 규제기관의 **인식과 마인드·행태도 철저하게 변화**해야 할 필요
- 이번 규제개혁은 **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**과 함께 규제에 대한 **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인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**

< 금융규제 유형화 및 합리적 개선 >

- ① 먼저, **규제 전체를 유형화**하고 유형마다 **다르게 접근**
 - 금융규제 **전수조사** → 규제목적에 따라 **4가지 유형으로 분류**
 - 법령, 감독규정, 시행세칙 등 **명시적 규제**뿐만 아니라, 행정지도, 모범규준, 가이드라인 등 소위 **‘그림자 규제’**도 전수조사
 - i) 시장질서, ii)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 : 강화 또는 정교화
 - iii) 건전성규제 중 **과도한 부분** :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
 - iv) **영업행위 규제** : 과감하게 완화
 - 특히, 금융업 **경쟁체제를 보다 확대**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추진
 - 금융회사 개수 측면에서는 **독과점 상태라 보기 어렵지만**, 실제 금융회사는 **차별성 없는 판에 박힌 영업형태** 지속
 - * 은행은 **담보대출** 위주, 증권은 **위탁매매** 전념, 보험은 **유사한 상품** 등

- 금융업의 차별성·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, 보험슈퍼마켓 등 **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**하고,
- 진입기준·업무범위·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**영업활동 규제**를 **대폭 완화**해 나갈 것임

② 둘째, **규제합리와 기준**에 따라 금융규제 전체를 하나하나 점검

- < 합리화 기준 >
- ① 사전 규제 → 사후 책임 강화
 - ② 글로벌 기준에 부합(선진사례 벤치마킹)
 - ③ 오프라인 → 온라인 시대에 적합 규제
 - ④ 포지티브 → 네거티브 방식
 - ⑤ 업권별·기능별 규제수준 맞춰 경쟁촉진
 - ⑥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등
 - ⑦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

③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개혁 추진

- 업계·연구기관에서 **개선해야 할 규제**를 「검토·제기」 하면, 금융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는 수용하고, 수용이 어려운 과제는 「상세히 설명·소명하거나 대안」 을 제시
- 금융당국도 개혁내용을 왜곡시키지 않고 시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금융현장의 실무자 마인드까지 변화시키는 노력 병행
- 아울러, 규제개혁 이후 **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** 규제개혁의 효과를 **지속적으로 분석·점검**해 나갈 예정

<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인식·행태 개혁 >

- ① 현장의 **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**을 근절 → 외부기관의 정기적 서베이 등을 통한 상시 점검
- ② 「**현장점검반**」 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**끊임없이 청취**하여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 → No Action Letter, 유권해석 활성화 등

- ③ 특히, 금융규제 「**옴부즈만 제도**」 를 도입 → 규제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**제3자의 시각**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을 시정·개선 권고

- ➔ 규제 개혁이 **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**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「**금융규제 운영규정**」 을 마련 → 위반시 이에 **상응하는 적절한 조치**를 취해 나갈 것임

- 규제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**금융권이 자율책임문화를 정착**시키는 노력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함

- ① **적극적·창의적 금융인 인정**받는 시스템 구축 → 인사·보수·성과평가시스템(KPI) 개선, 창의적 금융상품 개발 촉진
- ②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하여 **자체역량 강화** 등 먼저 준비 → 규제 폐지에 부담을 느끼거나 자체 문제를 규제 탓 하면 안됨
- ③ 규제를 풀 만큼, **내부통제제도를 보다 확고히** 구축할 필요 → **금융사고가 발생**하거나 **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면 철저히** 책임

3. 마무리 말씀

- 금융규제개혁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하는 것 → 금융회사, 협회, 연구원 등 **모든 금융 관계자의 협업 필요**
- 금융회사는 금융산업의 **자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현장의 규제**를 적극 발굴하여 제안
- **협회와 연구원**은 자체 TF를 구성하여 합리화 기준에 따른 규제 존치 필요성을 **꼼꼼히 점검** →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가능
- 금융당국도 모든 규제를 폐지한 상태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규제만을 찾는다는 **마음가짐**으로 규제개혁 추진
- 이번 금융규제개혁이 우리 금융의 **30년 성장에 기틀을 마련**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**혼신의 노력**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